광주 도심·주택가 '열섬' 심각

폭염특보 속 지역마다 최고 기온 2~3도 차이

최근 5일간 자동기상관측소 6곳 분석

도심 녹화·공기 소통 건물 배치 시급

20일 오후 2시5분 광주시 광산구 용곡동 '하남산업단지 관리공단' 옥상 37m고도에 설치돼 있는 '자동기상관측장비'(AWS)는 35도라는 관측 정보를 기상청 전산망으로 보내왔다. 이날 관측된 최고 기온이었다. 하지만 같은 시각 북구 운암동 광주지방기상청(고도 71m)의 AWS가 관측한 최고 기온은 33.1도로 하남산단 보다 1.9도가 낮았다.

같은 광주시내라도 건물의 밀집도나 냉방기 등의 가동 정도, 교통량 등에 따라 폭염의 정도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 때문에 도시녹화나 공기소통을 고려한 건물배치 등으로 '열섬현상'(Heat Island)을 극복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날 광주시내에 설치된 다른 4곳의 AWS에서 관측된 최고기온은 ▲광주시 농업기술센터(광산구 용곡동·고도 37m) 34.4도 ▲조선대학교 자연과학대 옥상(동구 서석동·〃 60m) 34.2도 ▲월드컵보조경기장(서구 풍암동·〃 36m) 34.2도 ▲무등산 장불재(〃 924m) 27.8도 등이었다. 하남산단·월드컵보조경기장 등 공장이나 주택이 밀집돼 있을수록, 교통량이 많은 곳일수록 최고기온이 높았던 것이다.

폭염이 시작된 16~19일 나흘간의 낮 최고기온을 비교해보면, 이런 경향은 더욱 명확해진다.

하남 공단은 ▲16일 35.5도 ▲17일 36.5도 ▲18일 34.8도 ▲19일 34.6도 기록하며 자동기상관측장비가 있는 6곳 가운데 가장 열섬현상이 심했다. 기상청은 ▲16일 33.4도 ▲17일 34.3도▲18일 33.3도 ▲19일 32.8도를 보여 장불재를 제외한 도심 가운데 가장 낮은 온도를 보였다. 최고 2.2도까지 기온 차이를 보인 셈이다.

AWS가 없는 금남로나 상무지구 등의 최고온도는 현재 측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기상 전문가들은 도심은 외곽지역보다 더욱 극심한 폭염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한다.

대단위 공장이 밀집되어 있는 하남산단의 경우 뜨거운 햇볕에 공장 기계를 가동하면서 발생하는 인공열까지 더해서 기온이 높아진다.

서구 풍암동 주택가도 열을 잘 흡수하는 아스팔트 도로가 많고, 아파트가 밀집해 에어컨 사용 등으로 인한 인공 열이 많은 특성이 있다.

진기범 광주지방기상청장은 "금남로나 상무지구 같은 도심의 경우 더욱 많은 인공열로 인해 열섬현상까지 나타난다"며 "나무를 많이 심고, 공기 흐름이 원활하게 건물을 배치하는 등 다양한 개선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광주지역 6개 AWS 측정 온도(단위: ℃)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기상청	33.4	34.3	33.3	32.8	33.1
조대 자연대	33.5	34.7	33.3	33.3	34.2
무등산 장불재	27.4	29.2	27.9	27.5	27.8
월드컵 경기장	34.4	35.0	34.1	34.0	34.2
하남산단	35.5	36.5	34.8	34.6	35.0
광산구 용곡동	35.0	34.6	34.1	33.9	34.4
최고-최저 기온차	2.1	2.2	1.5	1.8	1.9

* 장불재 제외

▲자동기상관측장비'(AWS·Automatic Weather System)= 자동으로 온도·풍향·풍속·강수량·강수 유무 등을 측정하는 기상 관측 장비. 센서로 관측한 기상정보를 분당 1회 기상청 전산망으로 보낸다.

▲열섬 현상(Heat Island)=도심 상공의 온도가 주변 지역보다 높아 기온 분포가 섬의 등고선과 비슷한 형태를 띤다 해서 붙여진 이름. 대규모 주거·상업 시설의 개발과 이로 인한 녹지면적의 축소, 냉난방기 같은 인공열과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도로에 물 뿌려 지열 낮추기 폭염특보 발효 5일째인 20일 오후,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 살수차(撒水車)가 물을 뿌리고 있다. 광주시 건설관리본부는 무더위가 끝날 때까지 살수차 2대를 동원, 지열(地熱)로 달아오른 시내 곳곳에 물을 뿌려 온도를 낮출 계획이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절에서 보낸 '밸런타인 30년'

구례군의원들, 화엄사 측으로부터 받아

9월 추경 '유물관 예산 반영 뇌물' 의혹

구례군 의회 의원들이 예산 심의 대상인 화엄사로부터 값비싼 수입 양주를 선물로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20일 '전남 행·의정 감시연대'에 따르면 구례군 의회 소속 의원 7명은 지난 4월께 화엄사 측으로부터 시가 90만 원대의 밸런타인 30년산 양주 1병씩과 다기세트 등을 선물로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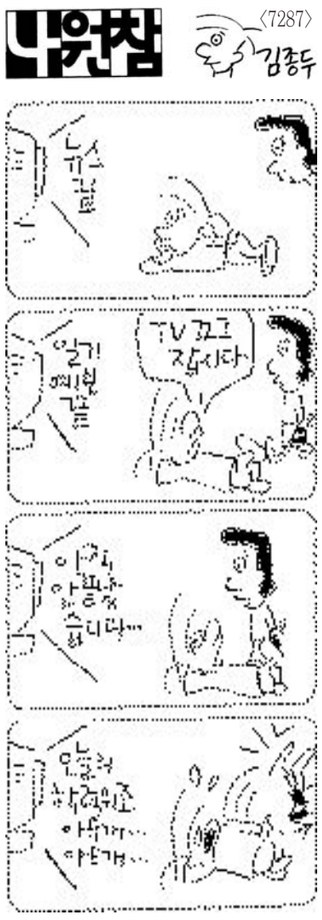
이에 앞서 구례군 의회는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이 사찰의 유물전시관 건립 예산 7억9천520만원을 2007년도 본예산에 반영했으며, 선물을 받기 직전에 열린 본회의에서는 올해 1차 추경에 반영된 유물전시관 추가 건립 예산 1억9천880만원 전액을 삭감했었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이에 대해 '화엄사 측이 2007년도 본예산을 통과시켜 준 데 대한 답례와, 오는 9월 2차 추경 때 이미 삭감된 예산 1억9천880만원을 부활시켜 달라는 의미에서 의원들에게 선물을 건넨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남 행·의정감시연대'는 성명을 통해 "군의원들이 대가성이 다분한 고가의 선물을 받은 것은 윤리의식이 실종됐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의원들에게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 본래의 책무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고 비난했다.

구례군 의회 의장은 "예산 심의와 관련 없이 양주를 선물로 받았다"며 "며칠 전 양주를 사찰 측에 되돌려줬으며 다른 의원들도 모두 되돌려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구례=김동호기자 dhkim@



"생존권 위협" 골프장 인가 취소

광주지법 첫 제동

전남지역 자치단체의 잇따른 골프장 건설 허가에 법원이 생존권과 환경권 침해 이유를 들어 처음으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

광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김진상)는 20일 무안군 청계면 주민 63명이 무안군을 상대로 낸 군 계획시설 사업실시계획 인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무안군 청계면에 18홀 규모의 골프장을 신설토록 무안군이 K업체에 내린 군 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 인가·인가변경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사가 진행 중이고 시행업체에서 상당한 자금을 투입한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무안군이나 업체가 주장하는 ▲개인·경제적 이익 ▲골프의 대중화 ▲자치단체의 세수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 효과에 비해 주민들의 생존권 침해와 자연환경 파괴로 인한 손실이 훨씬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해당 지역의 지형을 검토했을 때 오염물질이 발생하면 마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일반적으로 골프장은 잔디 등을 관리하기 위해 대량의 농약과 비료 사용이 불가피한 점, 오수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식수 등이 오염돼 주민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차 7대 털어 훔친 돈 고작 6,700원

쌍나팔

○…집 나온 20대가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7대의 차량에서 겨우 6천700원을 털었다가 덜미.

○…광주 북부경찰에 따르면 임모(23·광주시 광산구)씨는 20일 새벽 2시께 광주시 북구 운암동 J아파트 103동 앞 주차장에 주차된 손모(46)씨의 무쏘 차량에서 500원을 꺼내는 등 이날 하루 이곳 주차장에 있는 차에서 동전 6천700원을 훔쳤다는 것.

○…임씨는 주차된 260대의 차문이 열렸는지 여부를 일일이 확인한 뒤 운전자가 문을 닫지 않고 간 7대에서만 동전을 몰래 꺼냈는데, 종일 주차장을 빙빙 돌고 있는 것을 수상히 여긴 주민의 신고로 들통.

○…임씨는 경찰에서 "아버지와 싸우고 가출한 뒤 PC방에서 생활해 왔는데, 돈이 떨어져 게임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진술.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공주서 산림청 헬기 추락 3명 사망

20일 오전 8시8분께 충남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 여차니산 중턱 200m 지점에서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진천관리소 소속 헬기 벨 206-L3(FP 709)기가 추락했다. 이 사고로 헬기에 타고 있던 강현종(52)·김주홍(51) 조종사와 이형식(47) 정비사 등 3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다.

강 조종사 등은 공주시 일대 밤나무 숲 항공방제작업을 위해 이날 오전 8시께 공주시 신관동 둔치를 이륙, 이동하던 중이었다. /연합뉴스

순천 홈에버에 분뇨통

경찰, 수사 나서

순천경찰은 20일 비정규직 계약 해지 사태와 관련, 홈에버 순천점에 누군가 분뇨통을 갖다 놓아 수사에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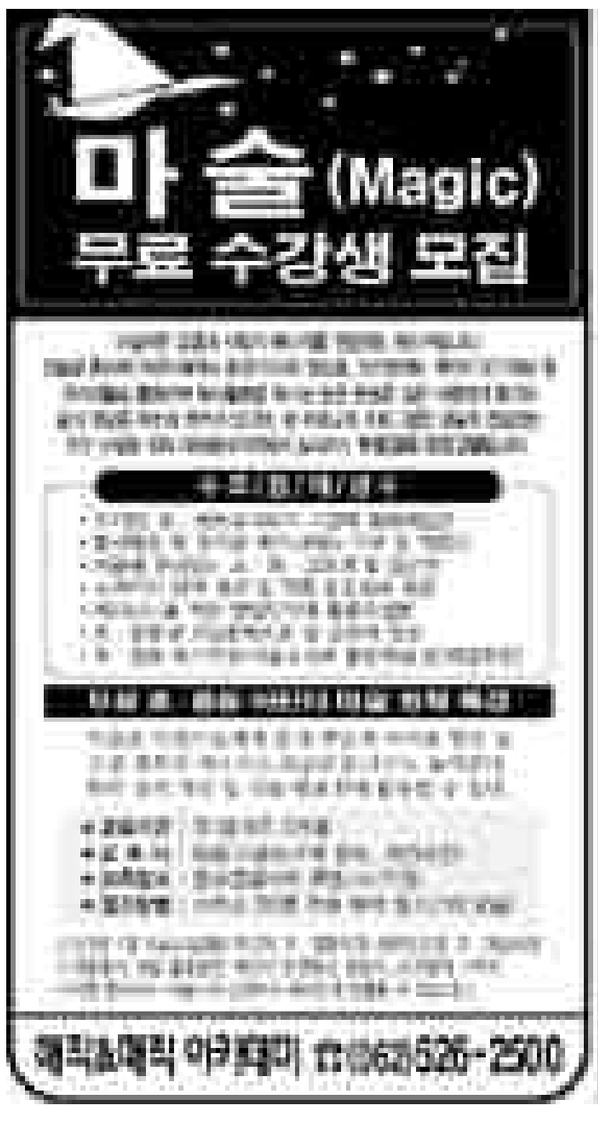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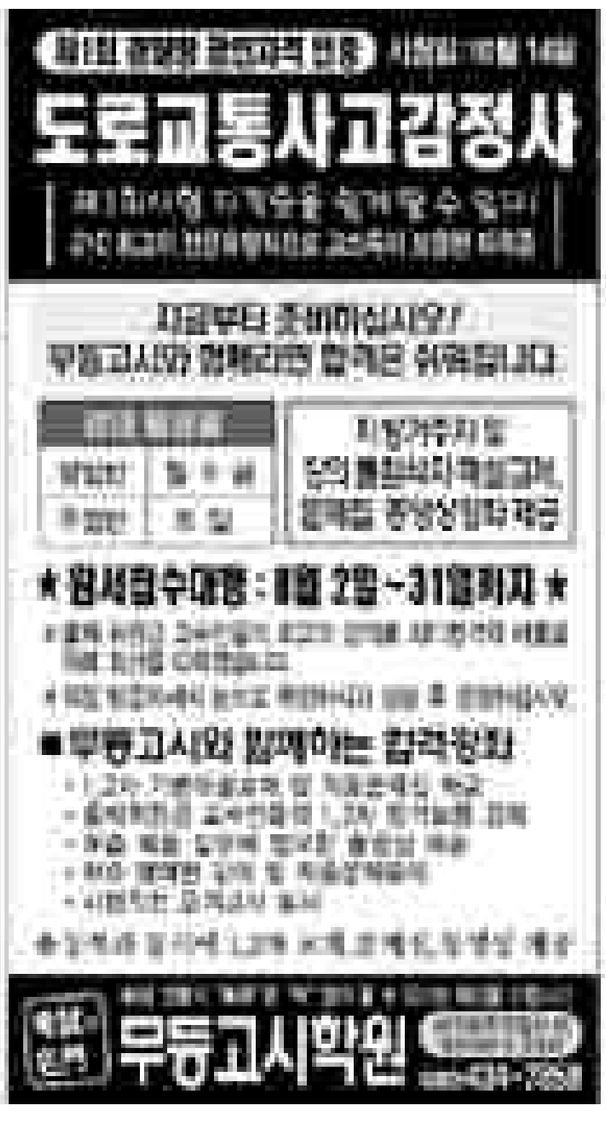
경찰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2시 30분께 순천시 풍덕동 홈에버 주차장 5층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30~40대 남자 5~6명이 분뇨통(10ℓ)을 아래층으로 옮기던 중 보안직원들에 발각되자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통에 담긴 분뇨 5ℓ 가량이 5층에서 4층으로 내려가는 '무빙워크'(moving walk) 바닥에 흘러 내렸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노인요양시설 반대 시위

주민 대표에 징역형

광주지법 형사4 단독 장정희 판사는 20일 노인요양원 건축공사 등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원모(60)씨와 김모(61)씨에 대해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씨 등은 노인전문 요양원이 혐오시설이라고 주장하며 건축공사를 방해하고 건립 반대시위를 주도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원씨 등은 사회복지법인 '인애동산'이 지난해 8월 광주시 남구에 노인요양원을 건립 공사를 시작하자 인근 주민들과 '신축 이전 추진위'를 결성, 공사현장·남구청 주변 등지에서 30여 차례에 걸쳐 불법 집회·시위를 벌이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